

## 세리장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오늘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 : 1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 : 3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복음 19 : 4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누가복음 19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 : 7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9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누가복음 19 : 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여리고 에서 생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이르러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기뻐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너무 기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여 많은 설교자들이 벌써 설교를 하고 지나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자들이 별로 터치하지 않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사람은, 바울의 신학이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하는데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신학은 예수님과 별로 관련이 없는 독창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번도 없다. 그는 단지 율법을 재해석한 유대교의 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간판 스타로 내세워 자기의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읽은 책은 바울 신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바울 신학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유대교의 교훈과 같이, 아무 신앙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의 신학은 전적으로 예수님께로 부터 기원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라” 고 말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타락한 아담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육이란 이것도, 예수님이 마가 복음 7:21 에서 자연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육’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 하신바 마태 복음 16:24 에서 자기 부인을 예사람이란 용어로 대처하고 발전적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주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재설명하고, 발전적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예수님으로 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4 복음서에서 찾으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위에 의하면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신약 성서 시대의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하급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 때의 세리는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가 아닙니다. 로마정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의 액수를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입찰한 자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이권을 줍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고액을 바치겠다고 하는 청부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세금 징수를 맡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실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겨 동족들에게 징수하고, 그 나머지는 착복하는 등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파괴하는 죄인의 무리로 분류됩니다(마 18:17, 마 21:31),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하여, 세리와 죄인들(마 9:10-11, 11:19 ; 막 2:15-16, 눅 5:30)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 :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9 :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 배반자, 착취자로 여겨 멸시했으며,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소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향료로 유명하여 거두어 들이는 세금도 많았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부당한 세금 징수로 큰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멸시받는 이런 죄인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의 집에 들어 갈 때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누가복음 5:30)” 하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면, 이것은 사회의 윤리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거기에 개의치 않고,

누가복음 19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부족하여 유대인들이 민족의 시조로 떠받드는 아브라함까지 들먹이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십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회당에서 내쫓아 버린 죄인입니다. 외모로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자랑스럽기커녕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요. 행위에 의해서 회당에도 못들어 오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쉬쉬 해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죄인두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 갈라디아서 3 :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

그러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은 삭개오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십니다.

### 요한복음 8 :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와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다리다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마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고 기뻐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동질의 믿음입니다. 삭개오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입니다.

행위가 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 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의에 의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사람입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 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터 시작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부터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일언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부터 시작된 교리입니다.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약에 있어서의 명시적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약에 있어서의 명시적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입니다.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하박국 2 :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치며 매달렸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 또한 구약 성경에 기초합니다.

레위기 18 : 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의거하여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로 인해 살겠지만, 사람은 타락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구원은 주지 못한다. 율법은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은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며 그렇게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회당에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의 종교적 공동체에서 내 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 : 7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의 태도를 목살하시고 오늘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폭탄적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22 :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닷가의 모래로 상징되는 땅의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예들로,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 지금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의미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들을 의미합니다. 약속에 의한 믿음으로 태어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즉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 :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갈라디아서 4 : 23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신적 이스라엘은 계집종에게서 태어나 종노릇하고,  
영적 이스라엘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나 아들로 있고,

갈라디아서 4 :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갈라디아서 4 :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갈라디아서 4 :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종으로 율법아래에서 땅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아들로써 복음아래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너지 않으면 종이 되고, 아브라함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에 의해, 기적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동족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세리 삭개오였지만,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장 삭개오의 영적 신분은 이방인으로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라 하며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처럼 취급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같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방인을 찾아 오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듯,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